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윤소정·강승희[†]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Problem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So-Jung YOON · Seung-Hee K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 among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influencing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ntains 482 middle school stud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statistical package for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rrelations among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problem behavior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students' social support had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problem behavior, but students' attachment didn't have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problem behavior. That is to say, social support mediated the effect of attachment on problem behavior. These results imply that perceived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Results suggest that programs that promote soci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reduce problem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Attachment, Social support, Problem behavior, Middle school students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해 가는 시기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자 극적인 도전의 시기이기도 하다(Lerner & Galambos, 1998). 청소년들은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특성의 많은 부분이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어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

는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청소년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행동을 하기도 하며, 문제행동의 표출 가능성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때 더욱 커지게 된다(Buehler & Gerard, 2002; Peterson, 2005).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

[†] Corresponding author: 051-629-5245, sheekang@pknu.ac.kr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K-2010-063).

년기의 문제행동은 성인기의 문제행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체폭력, 범죄행동, 배우자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ribata, 2006; Kalb & Williams, 2002). 오래전부터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이루어져 왔으나(박원모 외, 2009), 청소년 문제행동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백혜정, 황혜정, 2006), 보통 자신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실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급우, 교사, 가족구성원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상처를 안기게 된다(Chandler & Dahlquist, 2002).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발이 단일차원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중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 및 학교환경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며(서재복, 2006; 하영희, 2003),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이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문영숙, 2008).

또한 가족과 교사, 또래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혹은 매개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ahne & Bailey, 1999),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astern, 2001). 보다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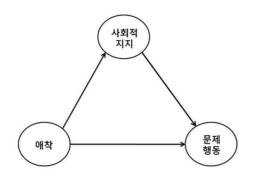
체적으로,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해결 기술, 일반지능, 대처능력, 통제신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등이 있다. 그 중 사회적 지지는 불우한 환경에 있어 충족되지 못한 심리적 문제에서 느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Compas, 1987), 나아가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Cohen & Wills, 1985). 따라서 가족과 함께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예측력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두 변인이 서로 어떠한 경로로, 혹은 구조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애착과 문제 행동간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 간에 유 의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지만, 이들 세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 그리 고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 모애착의 영향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간 의 종합적인 관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지금까지 중학생의 문제행동, 부모애착 및 사회적 지지를 함께 연구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 변인들의 종합적인 관계 구조를 밝히 는 연구는 향후 중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간의 가설적 구조 모형의 적합 성은 어떠한가? ([그림 1] 참조)



[그림 1]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 행동간의 가설적 구조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애착과 문제행동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부모관련 변인 중 하나인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경님, 2002).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느끼는 깊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전 생애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Ainsworth, 1982),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애착 행동은 감소하지만 애착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들은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휘숙, 1997). 특히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학교적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현영, 강승희, 2011; 이희영, 하경선, 2010).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Bowlby(1982)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Bowlby(1982)는 각 개인이 애착대상과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 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아 동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모델을 발달 시키는데 이것은 양육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 봐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의집중과 돌봄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을 포함한다. 이 작동 모델은 그들이 새롭게 형성하는 관계(기대, 개념, 행동등)로 이어져서 전 생애동안 계속적으로 애착 양식의 한 기제를 제공하게 되고, 초기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 맺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Collins & Read, 1990). 다시 말하면, 내적작동모델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바뀌어 애착체계를 지배하는역할을 하게 된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성장한 이 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도 안 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 와 안정되지 못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개인은 자 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 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라면서 계속 발전되어 자신과 타인 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된다(Styron & Janoff-Bulman, 1997).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애착으로 상정한 여러 연 구들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 수준과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다(고정자, 2005; 이경님, 2002, 2004; Liu, 2006, Papini & Roggman, 1992). 또한, 부모애착 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작·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Raja, McGee, & Stanton, 1992). 특 히,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부 모의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일탈행동을 쉽게 범할 수 있다 (Dorius, Bahr, Hoffmann, & Harmon, 2004).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애착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에 기초할 경우, 초기 양육에 실패하여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시키지 못한 청소년은 안정 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아기 초기에 불안정한 애착 수준을 형성한 청소년은 애착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 몇몇 연구자들(Baldwin et al., 1996; Kobadk, 1994; Lewis, 1994)은 애착유형은 변할 수 있다는 관점과 생애 후기에 중요한 관계는 개인의 애착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나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다른 유형의 정신적 표상(기억들,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 기술과 전략 등을 포함해서)을 갖는다. 즉, 현재 개인의 심리적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특성들이 있다면, 유아기 초기에 이루어진 애착 수준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청소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갈등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변인이 있다면,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은 감소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문제행동이 사회적 관계 내의 갈등(Buehler & Gerard, 2002; Peterson, 2005)과 스트레스 상황(김수주, 2001; 안혜원, 이재연, 2009;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에서 발생한다고 볼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있다면, 청소년 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문은식, 2005),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장선희, 이미애, 2010).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주효과 모델과 완충효과 모델을 들 수 있다. 주효과 모델은 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완충효과모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Cohen & Wills, 1985).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Kahne & Bailey, 1999)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과 죽음, 소망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자살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u & Bond, 2006), 또한 학교환경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1995; 조복희, 이진숙, 한세영, 2005; 한미현, 1996; Dubow & Ullman, 1989).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지 제공자에 따라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로 구분된다. 가족 지지는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보다 비행이나 학교중도포기에 영향을 주며(강현아, 2007; 하영희, 2003; McNeal, 1999), 스트레스 증상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욱, 이상준, 2008). 교사지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이은주, 2000; Dumont & Provost, 1999), 교사지기 낮을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한다고보고되고 있다(정기원, 권량희, 2006). 그리고 교사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학생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알려져 있다(우채영, 임재국, 2009; 이주리, 2008).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이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래집단의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김선희, 2000). 따라서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0년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부산시에 거주하는 3개 중학교 1, 2, 3학년 총 48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3개 학교에 배부된 설문지는 최초 520부였으나, 이중 49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82부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학생은 남학생이 246명(51.0%), 여학생이 236명(49.0%)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49명(30.9%), 2학년이 172명(35.7%), 3학년이 161명(33.4%)으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한 것이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

어진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부, 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각각의 Cronbach's a값은 의사소통 .86, 신뢰도 .89, 소외감 .60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 각각의 Cronbach's a값은 의사소통 86, 신뢰도 89, 소외감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값이 .60이상인 경우를 신뢰도가 만족할 수준으로 보고(홍윤미, 황경자, 김미자, 박창기, 2008), 의사소통과 신뢰도 요인만을 합쳐서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 모애착에 대한 Cronbach's a값은 부애착 .93, 모 애착 .93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명숙(199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 격려, 인정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가족지지 .94, 또래지지 .82, 교사지지 .91로 나타났다.

다.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하은혜(1997)의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Report: K-YSR) 중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일부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축(7문항), 신체증상(8문항), 우울/불안(10문항), 그리고 공격성(11문항)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문항 수는 36문항이며, 점수 체계는 전혀 아니다에 1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행동 척도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위축 .78, 신체증상, .81, 우울/불안 .83, 공격성 .79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프로그램과 AMOS ver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첫째,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Cronbach's α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변인들의 관계성을 알아보기위하여 상관분석과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그리고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도 GFI, TLI, NFI, CF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문제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82)

| 잠재 변인 | 측정변인 | 평균 | 표준 편차 | 왜도 | 첨도 |
|----------|-------|------|----------|------|------|
| 애착 | 부애착 | 3.44 | .70 | 18 | 17 |
| ગાવ | 모애착 | 3.57 | .68 | 15 | 31 |
| 사회적 | 가족지지 | 3.39 | .92 | 83 | .10 |
| | 또래지지 | 3.78 | .73 | 81 | 1.29 |
| 지지 | 교사지지 | 3.22 | .82 | 04 | 12 |
| | 위축 | 1.47 | .41 | .93 | .69 |
| 문제 | 신체증상 | 1.46 | .42 | 1.01 | .53 |
| 행동 | 우울/불안 | 1.49 | .40 | .97 | .71 |
| | 공격성 | 1.51 | .35 | .74 | .47 |
| | | | | | |

위의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 애착에서는 아버지 애착(M=3.44, SD=.70)보다는 어머니 애착(M=3.57, SD=.68)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청소년 시기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중 또래지지(M=3.78, SD=.73)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교사지지(M=3.22, SD=.82)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공격성 모든 하위변인에서 평균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수준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West, Finch와 Curran (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 기준(왜도 2, 첨도>7의 경우 심한 비정규분 포)을 참조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관은 -.16(p<.001)에서부터 .81(p<.001) 까지 분포되어 있다. 부애착과 모애착간의 상관 은 .78(p<.001)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한쪽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으면 다른 부모와 의 애착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애착 및 모애착과 가족지지간의 상관은 .64(p<001), .69 (p<.001)로 나타나, 가족지지에서 부모애착은 중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래지지와 부애착

<표 2>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N=48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부애착 | - | | | | | | | | |
| 3.모애착 | .78*** | - | | | | | | | |
| 3.가족지지 | .64**** | .69**** | - | | | | | | |
| 4.또래지지 | .29*** | .34*** | .39*** | - | | | | | |
| 5.교사지지 | .28*** | .26*** | .33*** | .26*** | - | | | | |
| 6.위축 | 47*** | 45*** | 42*** | 41*** | 27*** | - | | | |
| 7.신체증상 | 31*** | 38*** | 34*** | 16*** | 19*** | .59*** | - | | |
| 8.우울/불안 | 41*** | 42*** | 38*** | 33*** | 20*** | .81*** | .62*** | - | |
| 9.공격성 | 31*** | 31*** | 30*** | 19*** | 20*** | .52*** | .46*** | .62*** |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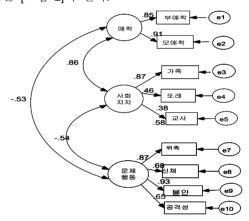
및 모애착간의 상관을 보면 .29(p<.001), .34(p<.001)로 나타나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의 경우에도 부애착 및 모애착간의 상관이 .28(p<.001), .26(p<.001)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가족지지와 또래지지, 그리고 교사지지간의 상관 역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간의 상관을 살펴보 면,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부모애착의 상관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낮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착수준과 위축간의 상관이 가장 크게 나타나(.47, p<.001, -.45, p<.001),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위축 행동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증상, 우울/불 안, 공격성의 경우에도 부모애착 수준과 모두 유 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낮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간의 상 관도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모 애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 록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위축과 가족지지(-.42, p<.001), 또래지지(-.41, p<.001)간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가족지지와 또래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위

축 행동은 증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문제행동의 측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 [그림 2]).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계수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77, GFI=.960, NFI=.957, IFI=.968, CFI=.967로 나타나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에 대한결과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있으며,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잠재 변수 | 측정변수 | В | β | SE | t |
|---------------|-------|------|-----|-----|----------|
| 애착 | 부애착 | 1 | .86 | - | - |
| পাশ্ৰ | 모애착 | 1.03 | .91 | .05 | 22.59*** |
| 사회 | 가족지지 | 1 | .87 | - | - |
| 사회 적 지지 | 또래지지 | .42 | .46 | .05 | 9.30*** |
| | 교사지지 | .39 | .38 | .05 | 7.70*** |
| | 위축 | 1 | .87 | - | - |
| 문제 행동 | 신체증상 | .80 | .68 | .05 | 16.82*** |
| | 우울/불안 | 1.04 | .93 | .04 | 25.48*** |
| | 공격성 | .64 | .65 | .04 | 15.87*** |

***p<.001

3.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GFI | TLI | NFI | CFI | RMSEA |
|------|------|------|------|-------|
| .960 | .951 | .957 | .967 | .0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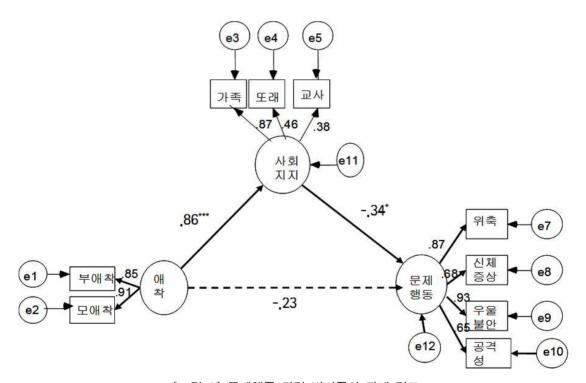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종모 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에서 GFI, TLI, NFI, CFI 가 모두 .90이상이고 RMSEA도 .077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검정결과 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 로 표현된 최종경로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5> 문제행동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의 경로계수

| 경로내용 | В | β | SE | t |
|------------------|------|-----|-----|--------------------|
| 사회적 지지 ← 애착 | 1.10 | .86 | .06 | 18.97*** |
| 문제행동 ← 사회적 지지 | 15 | 34 | .06 | -2.38 [*] |
| 문제행동 ← 애착 | 13 | 23 | .08 | -1.72 |

*p<.05, ****p<.001



[그림 3] 문제행동 관련 변인들의 관계 경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사회적 지지(t=18.97, p<.001)에,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 (t=-2.38, p<.05)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5>).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 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전체효과 |
|--------|------|------|------|
| 애착 | 23 | 29 | 53 |
| 사회적 지지 | 34 | - | 34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 문제행동 간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애착과 모애착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부애착 및 모애착과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와의 상관 또한 모두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지, 또래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김수진, 2000; 박영종, 염시창, 홍경자, 2007; 박은영, 2004; 이시은, 이재창, 2008; Herzberg et al., 1999; Larose, 1993)과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사회적 지지에 대한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청소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을바탕으로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애착과 문제행동간의 상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부모애착의 상관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낮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부모애착과 문제행동간의관계 연구 결과들(백혜정, 황혜정, 2006; 송지영, 박성연, 2010; 심미영, 정규석, 2007; Liu, 2006)과동일하다. 즉,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더 쉽게 일탈행동을 범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rius, Bahr, Hoffmann, & Harmon, 2004).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간의 상관도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김선자, 조옥귀, 2003; 박진아, 2001; 오현숙, 200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이 부모와 교사 및 또래들로부터 지속적인 인정과 신뢰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결국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와 교사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후,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관계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사회적 지지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 수준 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애착 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할 경우에만 문 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 구의 연구 설계 시 가정하였던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 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애착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윤혜미와 류나미(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가정한 애착 대신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을 상정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 역시 사회적 지지를 통했을 경우에만 유의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기능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임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와의 차이는 윤혜미와 류나미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아닌

가족기능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였고, 가족기능도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가족기능과 부모애착의 구인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부부 갈등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낮춘다고 한이신영과 정현회의 연구(2010)와 부모의 부부 갈등을 지각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다고 보고한 정봉회, 김혜경, 이경순(200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 동을 매개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애착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 년의 경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 낀다면,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전에, 그들을 지지 해 주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생각하게 될 것이 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원들을 생각한다면, 문제행동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결 과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요소가 많더라도 이들이 지 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인이나 혹은 지지적 환경이 있다면 문제행동은 예방될 수 있 을 것이다(윤혜미, 류나미, 2007). 따라서 청소년 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제공하여야할 것이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과 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표집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

라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행동 중 내현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 행동에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남, 여를 구분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지지 도구는 집중타당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 검정 결과 분산추출값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검사도구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온 것이라 볼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도구 사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현아(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145~165.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자·조옥귀(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 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주(2001).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지지, 스트레 스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남영옥·이상준(2008).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 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비교, 미래청소년 학회지 5(1), 1~18.
- 문영숙(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

- 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 회지 14(4), 405~414.
- 문은식(200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와 심리적 안녕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 육심리연구 19(4), 1087~1108.
- 박영종·염시창·홍경자(2007). 청소년의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육연구 30, 89~107.
- 박원모·이동훈·정태연·임승환·박제일(2009).
 학교부적응 검사와 BASC-2 검사 및 LCSI-C 검사와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 2501~2516
- 박은영(2004). 여고생의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강승희(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 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구조,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43~55.
- 백혜정·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8
- 서재복(2006). 실업계 고교생의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3(2), 66~ 88
- 송지영·박성연(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 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비행친구 유무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1(3), 51~66.
- 심미영·정규석(2007). 한국청소년 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
- 안혜원·이재연(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 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오현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 정·오윤희·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 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재소중인 비행집 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지: 임상 20(2), 259~270.
- 우채영·임재국(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 또래와의 적대적 인간관계, 학교폭력경험, 일 탈 및 대처행동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6(4), 145~166.
- 윤혜미·류나미(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3, 215-236.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 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님(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 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 과학연구소 12, 43-54.
- 이시은 · 이재창(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 이신영·정현희(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 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147~170.
- 이은주(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이주리(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563~574.
- 이희영·하경선(201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의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205~217
- 장선희·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 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휘숙(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정기원·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긴장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5), 81~102.
- 정봉희·김혜경·이경순(2008).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8(1), 291~312.
- 조복희·이진숙·한세영(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 행동문제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
-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4~42. 한건환·장휘숙·안권순(2004). 청소년들의 스트
- 안선완·상위국·안전군(2004). 정조년들의 스트 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존 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385~402.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행동평가척도(CBCL) 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허재경·김유숙(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10(4), 483~49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윤미·황경자·김미자·박창기(2008). 대학병 원 간호조직 균형 성과지표의 적합성 검증, 대 한간호학회지 38(1), 45~54.
- Ainsworth, M. D. S.(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 3~30), New York: Basic Books.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1996). Social 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style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uehler, C., & Gerard, J. M.(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73~78.
- Chandler, L. K., & Carol, M. D.(2002). Functional assessment, Upper Saddle. River,

- NJ: Pearson Education Inc.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mpas, B .E.(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8(4), 644~663.
- Dorius, C. J., Bahr, S., J., Hoffmann, J. P., Harmon, E. L.(2004). Parenting practic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and adolescent marijuana 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163~178.
- Dubow, F., & Ullman, C.(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Dumont, M. & Prov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istr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28(3), 343~363.
- Herzberg, D. S., Hammen, C. B., Dorli, D., & Shannon, E.(1999). Attachment cognitions predict perceived and enacted social support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4), 387~404.
- Horibata, J. M.(2006).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al monitoring,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nd ethnic identity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doctor's theses, Oregon University, Eugene, Oregon, United States.
- Kahne, J., & Bailey, K.(1999).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youth development: The case of I Have a Dream program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1(3), 321~ 343.
- Kalb, G., & Williams, J.(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nd adult crime, Meloburne, Victoria: Melbourne Institute.
- Kobak, R.(1994). Adult attachment: A personality

- or relationship construct?, Psychological Inquiry, 5, 42~44.
- Larose, S.(1993). Parent-adolescence attachment and specificity of perceived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arch 25~58, New Orleans, LA
- Lerner, R. M., & Galambos, N. L.(1998).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search, programs, and policies, Annual Reviews in Psychology, 49, 413~446.
- Lewis, M.(1994). Does attachment imply a relationship or multipl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47~51.
- Liu, Y. L.(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Master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study, London: Academy Press
- McNeal, R. B., Jr.(1999). Parental invest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 117~144.
- Papini, D. R., and Roggman, L. A.(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420~440.
- Peterson, G. W.(2005).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In T. P. Gullotta & G. R. Adams(Eds.). Handbook of adolescent behavioral problems: Evidence-based approaches to prevention and treatment New York: Springer.
- Raja, N., McGee, S.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Styron, T., & Janoff-Bulman, R.(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21(10), 1015~1023.

West, S.G., Finch, J.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Wu, W. C. H., & Bond, M. H.(2006). National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suicide among young and elderly citizens: Linking societal predictors to psychological facto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0, 45~60.

● 논문접수일 : 2011년 08월 2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1년 09월 19일

2차 - 2011년 10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1일